

사랑하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,

shalom, 지난 9월 17일부터 20일까지의 베트남 선교여행을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.

지난 동역서신에 기도 부탁드렸던 쓰러이뷔는 끝내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. 여권과 직장 일정 등 떠날 준비를 갖추었으나, 결국 어머니의 강경한 반대로 접어야했습니다. 쓰러이뷔의 사주에 올 해 집에서 멀리 가면 저주가 내린다는 이유였습니다. 지난 한 달간 쓰러이뷔에게 있었던 어려움과 그 가운데 꽃꽂히 서갔던 것을 생각할 때 꼭 함께 국경을 넘어 새로운 경험을 갖기를 바랬었습니다. 이 자매와 그 가족이 지금까지 악하고 거짓에 갇혀 살아왔을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. 복음은 자유입니다.

일곱 명의 팀원은 3박 4일의 베트남 선교여행 내내 쉬지 않고 이동하고 끊임없이 걸었습니다.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베트남의 호치민 ^{Ho Chi Minh City} 으로, 그리고 북쪽의 달랏 ^{Dalat} 까지의 왕복 1100Km 거리를 이동하였는데, 3박 4일 중 하루만 숙소에서 자고, 이들은 심야 버스 ^{sleeping bus} 로 움직였습니다. 그외 낮시간은 인근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잠깐 샤워를 하는 것 외의 매일 약 15시간을 밖에서 지내며 대부분 걸었던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.

이를 통해 팀원들은 호치민과 달랏 두 도시의 많은 길을 걸으며, 많은 것을 보았고, 많은 사람을 만났으며,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. 매일 아침과 밤 시간에 모여 하루의 사역과 만남들을 나누고 베트남 나라와 사람, 교회와 성도, 그리고 복음을 위해

각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선교사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기도하였습니다. 예배하였습니다.

마지막 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캄보디아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모두는 체력의 한계에 다다랐었습니다. 캄보디아 청년들은 베트남에서 무엇을 봤고, 무슨 생각을 했으며,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. 때가 되면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내실 것입니다. 하지만 분명히 본 것은 그들의 얼굴이 평안했고, 언어가 부드러웠으며,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이었습니다.

사랑하는 성도님, 기도와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. 서신에 나누지 못한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었지만, 매 순간을 지키시고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또한 캄보디아 청년들과 함께 걸었던 시간들은 저로하여금 이땅에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셨습니다.

저희 부부가 이곳 캄보디아에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앞에 부끄럼 없는 이로 살아갈 수 있기를, 그에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저희 가족에게 더해주시길 계속 기도해주세요. 늘 교회에 감사하고, 위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.

감사와 사랑을 담아,

2017년 9월 23일

정지웅(은영) 선교사 올림

